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Winona
파견대학	Winona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1 년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미네소타주에 위노나라는 도시에 위치해있습니다. 학교의 규모는 순천향대학교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은 대략 6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 느낌으로는 '여유'인 것 같습니다.</p>
2014-2 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저는 전공으로 거시경제학, 교양으로 라켓볼, 글쓰기 106,107, 그리고 기초통계학을 들었습니다. 전공이었던 거시경제학은 확실히 순천향대학교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 재미있었고 내용은 이론적인 것보다 이론에 응용한 계산문제들이 더 많아서 더 재미있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수업을 듣던 과제는 확실하게 한국보단 훨씬 많습니다. 과목 마다 매주 최소 1, 2 개의 숙제개념의 과제가 있습니다. 시험도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세네번 정도 봅니다. 글쓰기수업은 욕심 내서 두 개 다 들었는데 매 수업 때마다 내주는 과제 양이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들었지만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글쓰기 수업 둘 중 하나는 들어야 하는데, 들으신다면 107 을 추천합니다. 106 보다는 107 이 조금 더 수준 있는 수업이라 영어 공부하는 데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켓볼은 1:1 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을 때 교수가 자세와 그 자세의 이름 그리고 어떻게 치는 것인지 알려주고 파트너를 정해서 자기들끼리 연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2014-2 학기에 들었던 수업 중에 Language in American culture 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은 international 학생들이 듣는 수업으로 수강하는 동안 저랑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 도중에</p>

	<p>취소했습니다. 이 외의 제가 수강했던 모든 수업은 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p>
<p>2015-1 학기 수업</p>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2015-1 학기에는 전공으로 마케팅, 교양으로 영어문법, 퍼블릭스피킹, 중국어 중급, 타이치이, 필라테스를 수강했습니다. 마케팅수업은 생각했던 것만큼 재미있진 않았지만 유익하긴 합니다. 과제도 그때 그때 배운 수업내용에 관련해서 자기가 직접 서치해서 적용해서 해야 하는 과제여서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문법 수업도 굉장히 재미있고 교수님도 좋습니다. 한 학기 더 있었다면 2 학기에 이어서 하는 문법수업을 또 수강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주어동사와 같은 기초부터 배우는 수업이었지만 영어로 배우는 재미도 있고 한국에서 배우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고 여러 가지 예시도 많이 들어주면서 수업을 해서 더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퍼블릭스피킹 수업은 교수에 따라 평이 달라지게 되는데 제가 수강했던 수업의 교수님은 굉장히 친절하시고 좋으신 분이었지만 솔직하게 수업은 지루했었습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요해서 들었던 수업이기 때문에 등록을 했던 것입니다. 중급이라 저 포함 수강학생이 2 명뿐이어서 과외 식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타이치이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들었던 것인데 타이치이는 정말 정말 비추이고 필라테스는 추천입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오리엔테이션은 일주일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수강신청을 도와주고 영어와 수학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은행계좌 개설, 등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여러가지 활동도 합니다. 교환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Cross Cultural Scholarship 에 다양한활동들이 있어 관심있다면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포함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International Office 가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미리 메일이나 오피스에 가서 이름과 시간을 써두고 그 시간에 가시면 됩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여름은 한국보다 습기는 없지만 햇빛이 많이 세서 덥습니다. 겨울은 정말 정말 춥습니다. 이번 년도는 작년에 비해 덜 추웠다고들 하지만 저는 많이 추웠습니다. 겨울이 10 월 말쯤 시작해서 3 월까진 추운 것 같습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시골이라 그런지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학교 기숙사 중에 Kirkland 에 1 년동안 살았습니다. 숙소 시설은 이 기숙사가 제일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 좋습니다. 층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냉장고가 있는데 여기에 넣어두면 훔쳐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빼곤 여름 겨울 시원하고 따뜻해서 가져간 전기장판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랑 거리는 우리 학교를 예로 들면 해맞이에서 유니토피아 정도의 거리입니다.</p>
식사	<p><i>학교 Meal Plan (o)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i> <i>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i>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기숙사에 살게 되면 필수로 밀플랜을 신청해야 했는데 저는 일주일에 7 밀을 신청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뷔페처럼 되어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을 주문하면 만들어주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몇 번 먹으면 질립니다.</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기숙사와 가까워서 걸어 다녔고 주요 교통은 열악한 편입니다. 암트랙 역이 있어서 시카고나 미니애폴리스에 기차 타고 갈 수 있지만 시카고편은 딜레이가 부지기수입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약 130~140 만원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 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eWarrior Digital Life & Learning \$465 (x2) Athletics Fee \$48.48 (x2) Technology Fee \$103.60 (x2) Student Union Facility Fee \$125.60 (x2) MSUSA Fee \$6.45 (x2) Health Service Fee \$59.04 (x2) Wellness Fee \$72 (x2) Orientation Fee \$150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학교 보험 Student Health Insurance \$1200
숙소	기숙사	Housing Application Fee \$50 Room \$2838 (x2)
식비	밀플랜	Meal \$932 + \$926 Kryzko cash \$210 (x2) + a
교통비	왕복비행기	\$1370 + a
책값		\$200 정도
기타 1	여행경비	\$6000 정도
기타 2		
합계		18500 + a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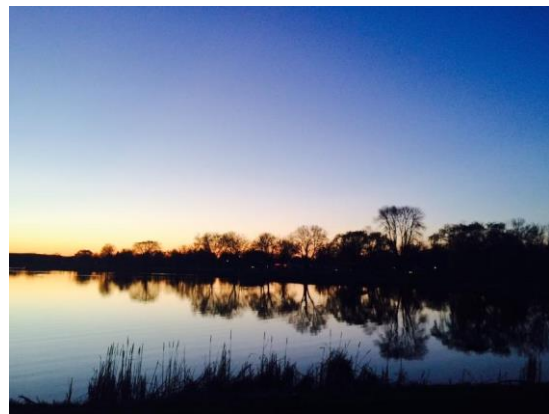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여전히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에 대한 저의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갔다 온 후에는 뭐든 부딪쳐봐야겠다 라는 마인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기에는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 때문에 한국이 많이 그리워서 한국에 얼른 가고 싶다라는 생각 뿐이었는데 적응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여유로운 미국생활에 빠져서 이제는 다시 미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미국이라는 곳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뿐일 것만 같은 굉장한 여유를 느끼고 왔습니다. 좀 더 열심히 놀지 못했던 게 아쉬울 뿐 학교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과제도 성실하게 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7. 사진보고서(6 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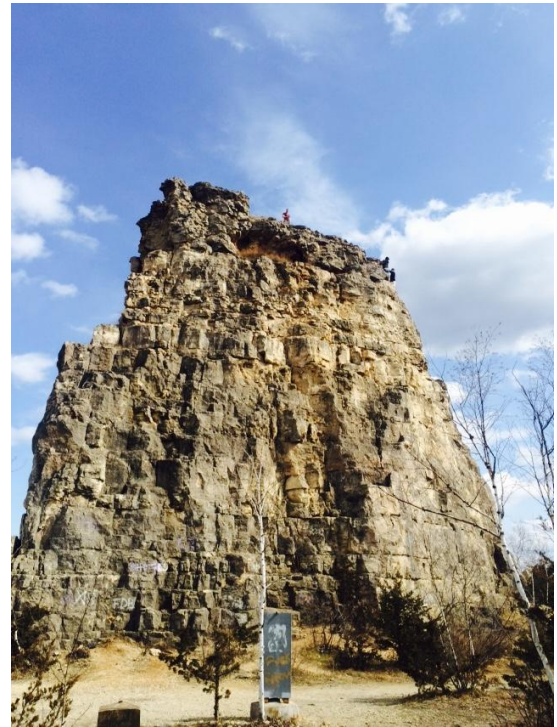
학교 근처에 있는 Winona Lake
입니다.



같은 Winona Lake 인데 1 년에 5 불
내면 여름엔 카누를 탈 수 있고 겨울엔
스케이트를 탈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도서관입니다.



Sugar Loaf 라는 곳으로 자세히 보시면
암벽등반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운타운가는길에 예뻐서 찍었습니다.

...